신라 중고기 왕경의 숲 개간과 경관변화*

서 민 수**

1. 머리말
2. 왕경개발 이전의 경주분지
3. 왕경 개발과 숲의 해체
 1) 외부세계로서 경주분지
 2) 내부세계로 전환
4. 맺음말

1. 머리말

그간 신라왕경의 도시개발로 세 하천에 둘러싸인 경주분지가[1] 자연공간에서 인공공간으로 전환된 사실이 연구되었다. 그에 따르면 경주시내는 6세기 초까지 하천이 범람하거나 토양이 저습해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하천의 치수작업과 저습지 매립으로 궁궐, 관아, 사찰, 주거지 등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한다.[2] 그런데 연구의 초점은 대개 고대국가의 성장 지표인 도시 개발 및 발달

---

* 이 논문은 2017년 12월 1일 열린 한국역사연구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공동개최 학술회의 "숲과 권력, 그리고 재해: 생태환경사로 한국사 읽기"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생태환경사연구소 연구원.

1) 이 글에서 '경주분지'는 북천, 서천, 남천의 세 하천이 둘러싸고 있는 현 경주시내 중심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경주분지를 세 하천 내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서술의 편의를 위해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2) 오영훈, 1992「신라왕경에 대한 고찰」『경주사학』 11; 김재홍, 1995「신라 중고기의 저습지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한국고대사논총』 7; 이기봉, 2002「신라 왕경의 범위와 구

과정에 두어졌다. 경주분지의 원래 경관, 즉 도시개발로 사라진 자연환경은 주목되지 못했다.

도시개발로 사라진 대표적 자연환경으로 숲이 주목된다. 건물이 지어질 공간의 확보, 건축재의 충당 면에서 경주분지를 왕경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숲의 대대적 벌채는 불가피했다. 일례로 신라의 첫 불교사원인 흥륜사는 天鏡林을 '크게' 베어낸 후 지어졌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경주분지에서 숲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3] 다행히 경주지역엔 숲 관련 기록이 비교적 풍부하므로 신라왕경의 도시개발을 검토한 기존 연구 성과를 포개면, 경주 분지의 숲 공간이 인공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생태환경사 연구가 축적되면서 국가 권력이 숲 공간과 자원을 장악한 다양한 방식이 밝혀졌다.[4] 이 글도 숲과 권력의 관계를 다루었다. 국가권력이 자

역에 대한 지리적 연구」『지리학논총』 45; 이근직, 2006「신라 왕경의 성립과 전개」『건축역사연구』 15-4 등.

3) 경주분지 내 숲이 하천가에 위치한다는 점에 주목해 하천의 범람을 막으려 숲을 조성했다거나(이기봉, 위의 논문, 35-41면; 이근직, 위의 논문, 196-198면), 북서풍과 하천의 측방침식을 막으려 하천변의 숲을 방풍림으로 이용했다고 본 연구가 있다(황상일, 2007「고대 경주 지역의 홍수 가능성과 인간 활동」『대한지리학회지』 42-6, 893-894면). 최근에는 신라왕경의 이원적 공간구조를 '都林'의 형성으로 자아낸 경관변화로 설명하기도 했다(이현태, 2016「신라 왕경의 이방제 시행과 이원적 공간구조 형성」『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95-96면).

4) 한국사에서 숲을 본격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13년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에서 진행한 학술회의 '한국의 숲과 인간, 상호성의 변천사'였다. 연구 성과는 이정호, 2013「고려시대 숲의 개발과 환경변화」『사학연구』111; 한정수, 2013「조선 태조~세종 대 숲 개발과 重松政策의 성립」『사학연구』 111; 김윤희, 2013「근대 서울의 숲, 위험관리와 민족주의 정치기획: 공론화된 숲의 장소성을 중심으로」『사학연구』 111로 정리되었다. 2016년에는 한국역사연구회 생태환경사연구반이 생태환경사의 관점에서 숲과 권력의 관계를 조망한 학술회의 "숲과 권력: 생태환경사로 한국사읽기"를 진행했다. 연구 성과는 서민수, 2017「삼국 초중기의 숲 인식 변화」『역사와 현실』 103; 김동진, 2017「15~19세기 한반도 산림의 민간 개방과 숲의 변화」『역사와 현실』 103; 백선례, 2017「일제 식민지시기 산불대책: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온 산불」『역사와 현실』 103; 고태우, 2017「개발과 이윤 추구에 갇힌 산림보호: 식민지 임업가 사이토 오토사쿠(齋藤音作)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103으로 정리되었다. 생태환경사연구반은 2017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한국역사연구회가 공동개최한 학술회의 "숲과 권력, 그리고 재해: 생태환경사로 한국사읽기2"에서 후속 연구를 발표하는 등 숲과 인간사회가 상호작용한 역사를 해명하는 데 힘을 보탰다.

연환경을 장악하고 도시화하는 과정에 숲을 어떻게 대했는지, 숲을 향한 여러 조치 속에서 신라인은 숲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토하려 한다. 그로써 숲이 인간사회와 오랫동안 상호작용한 역사 공간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2. 왕경개발 이전의 경주분지

경주분지와 그 주변 일대엔 숲 이름이 여럿 전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경주지역 숲으론 알지가 태어난 始林과 그 다른 이름인 鷄林·鳩林, 박혁거세가 태어난 蘿井傍林, 前佛시대의 가람 터로 전해진 천경림과 神遊林, 日月祭가 행해진 文熱林, 황룡사의 장육존상을 주조한 文仍林, '金現感虎'의 설화가 전해지는 論虎林, 도림사 곁의 入都林 등이 기록되었다. 6촌의 하나인 茂山 大樹村, 남산 서쪽 산기슭의 昌林寺, 헌덕왕이 묻힌 남쪽의 泉林寺·泉林村 등도 숲은 아니지만, 경주분지와 그 일대의 숲 이름이나 경관을 바탕으로 붙여진 지명일 것이다. 조선시대 문헌 『동경잡기』와 『경상도읍지』, 그리고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의 『朝鮮の林藪』도 나정의 숲, 계림, 천경림 등을 기록했다. 모두 신라의 숲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裨補藪, 五陵林＝南亭藪, 北藪, 高陽藪＝論虎藪, 柳林, 西部獵林, 枝北林, 林井藪, 魚岱藪, 五里藪, 鳳凰臺 숲, 閑地藪, 王家藪, 古城藪 등의 숲 이름도 전한다.

나열된 숲 이름이 주의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숲을 '林'으로, 조선시대 이후의 문헌은 '임'과 '藪'를 함께 사용했다. '임'과 '수'는 모두 숲을 지칭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되었던 듯하다.

어떤 기준일까. 『춘추좌전』에서는 '산림의 나무'와 '수의 땔감'을 대구로 삼아,[5] 고대 중국에서 '임'과 '수'는 모두 나무를 산출하지만 입지상으로 구분된 공간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한다. 그 점은 후한중기 『설문해자』가 '임'을 평지에 나무가 모인 것, '수'를 커다란 저습지라 정리해[6] 분명하다. 그런데 후한말 鄭玄은 『주

5) 『춘추좌전』 昭公二十年 "山林之木 衡鹿守之 澤之萑蒲 舟鮫守之 藪之薪蒸 虞候守之 海之鹽蜃 祈望守之"

6) 『설문해자』 권1, 艸部 "藪大澤也": 『설문해자』 권6, 林部 "平土有叢木曰林"

례』에 주석을 더해 '澤'은 물이 모여든 곳, '수'는 물이 드문 곳으로 구분했다.[7] 원래 '수'는 저습지 같은 자연환경을 지칭했지만, 후한대 저습지가 점차 육지로 개발되면서 그 추세가 용어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8] 한국에서 '임'과 '수'의 구분은 이 기준을 따른 듯하다. 고려~조선시기 숲 관련 기록을 두루 검토한 『조선의 임수』는 '임'을 산기슭 부근의 숲, '수'를 川澤 부근의 숲이라 풀이했다.[9] 거칠게 정리하면 '수'는 하천변이나 저습지를 따라 형성된 숲, '임'은 대개 산림으로 연칭하는, 즉 물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데 형성된 숲을 가리킨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수'로 지칭된 숲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나열한 경주 지역의 숲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숲도 '임'으로 표기했다.[10] 이 점은 조선시대 林政의 발달로 '임'과 '수'의 구별이 뚜렷해지고, 그 결과 '수'로 표기된 숲 이름이 늘어났다는 견해가 경청된다.[1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임'과 '수'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시대의 추세가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신라 고유의 숲 이름을 그대로 수록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예컨대 『삼국유사』의 논호림은 조선시대 문헌 『동경잡기』 및 『경상도읍지』에 '옛날엔 이른바 논호수였으나 지금은 세속에서 고양수라 부른다'고[12] 기록되었다. 『동경잡기』 및 『경상도읍지』가 쓰인 당시 고양수라 불린 숲은 원래 이름이 논호수였다는 것이다. 『삼국유사』가 논호림이라 기록했음에도 그 숲이 원래 논호수라 한 까닭은 무엇일까. 고려시대까지 논호림이라 불렸지만 조선시대 임정의 발달로 고쳐졌는지, 신라와 고려의 경주 사람들은 논호수라 불렀지만 『삼국유사』가 모든 숲을 '임'으로 통칭한 결과인지 사정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임'으로 표기한 숲 이름 가운데, 실은 저

---

7) 『주례』 권9, 地官司徒 "澤水所鍾也 水希曰藪"

8) 村松弘一, 2016 『中國古代環境史の研究』, 汲古書院, 166면.

9) 생명의 숲 국민운동 옮김, 2007 『역주 조선의 임수』, 지오북, 98면(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38 『朝鮮の林藪』).

10) 『삼국유사』엔 白嵓藪, 鉢淵藪, 金山藪 등의 용례가 확인되나, 모두 사찰을 지칭한 것이지 숲 지명은 아니다.

11) 생명의 숲 국민운동 옮김, 앞의 책, 134-135면.

12) 『동경잡기』 권2, 藪 "高陽藪在府北四里 卽古所謂論虎藪也"

습지나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수' 같은 숲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흔히 숲은 산기슭을 따라 나무가 밀집해 자란 공간을 떠올리기 쉽고, 오늘날 경주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오늘날 경주의 자연경관은 경주분지의 저습지를 육지로 개발하려는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졌다.[13] 경주분지는 명활산 북쪽의 협곡을 빠져나온 북천이 퇴적물을 옮겨 형성된 선상지로서, 지형 기복의 저위면을 따라 지하수가 용출해 저습지가 형성된다.[14] 월성 동북쪽의 황룡사지, 월성해자, 월지 등을 발굴 조사한 결과 드러난 생토층이 부분적으로 습지토양이란 점은[15] 그 일대에 원래 저습지가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저습지는 자연상태에서, 또는 지하수위가 낮아지거나 외부에서 무기물이 유입되면 교목과 관목이 자라는 습지나 습초지로 발전한다.[16] 황룡사 서쪽 담장의 연못 유구 퇴적층에서 소형 수목과 수초의 잔해가 섞여 나온 점,[17] 월지의 생토층을 이룬 습지토양에서 다듬지 않은 자연목 상태의 탄화목재가 나온 점[18] 등은 경주분지의 저습지에 초목이 자랐음을 짐작케 한다. 즉, 경주분지의 숲 가운데 일부는 사료로 확인되지 않아도 저습지와 하천을 따라 형성된 '수'였다고 할 수 있다.

---

13) 김재홍, 1995 앞의 논문, 62-6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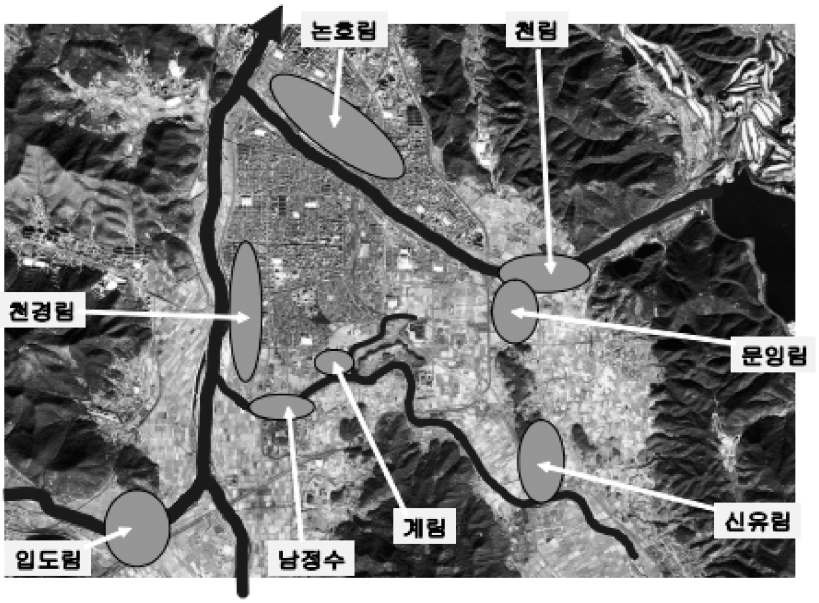
14) 황상일 · 윤순옥, 2005「경주선상지의 지형발달」『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26, 245-246면.

1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1』, 24면;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85『월성해자시발굴조사보고서』, 52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경주 황룡사연구센터 건립예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10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경주 동궁과 월지Ⅰ 발굴조사보고서』, 47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경주 동궁과 월지Ⅱ 발굴조사보고서』, 25 · 38면 등.

16) 고전적 견해에 따르면 습지는 얕은 호수가 육상생태계로 발전하는 중간단계다. 무기물과 유기물이 퇴적되면 처음에는 수생식물이 자라고, 물의 깊이가 얕아지면서 부엽식물, 정수식물이 자란다. 결국 토탄층이 형성되고 관목과 작은 교목이 출현하며, 최종적으로는 극상림이 발달한다. 그러나 현재 습지생태학자들은 습지의 수위를 변하게 하는 외부 환경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습지의 최종단계를 나무가 자라는 습지나 습초지로 설명한다(한국습지학회, 2016『습지학』, 라이프사이언스, 144면).

1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책, 210면.

1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앞의 책, 539면.



〈그림 1〉 삼국시대 경주지역 숲 위치 비정안(이근직,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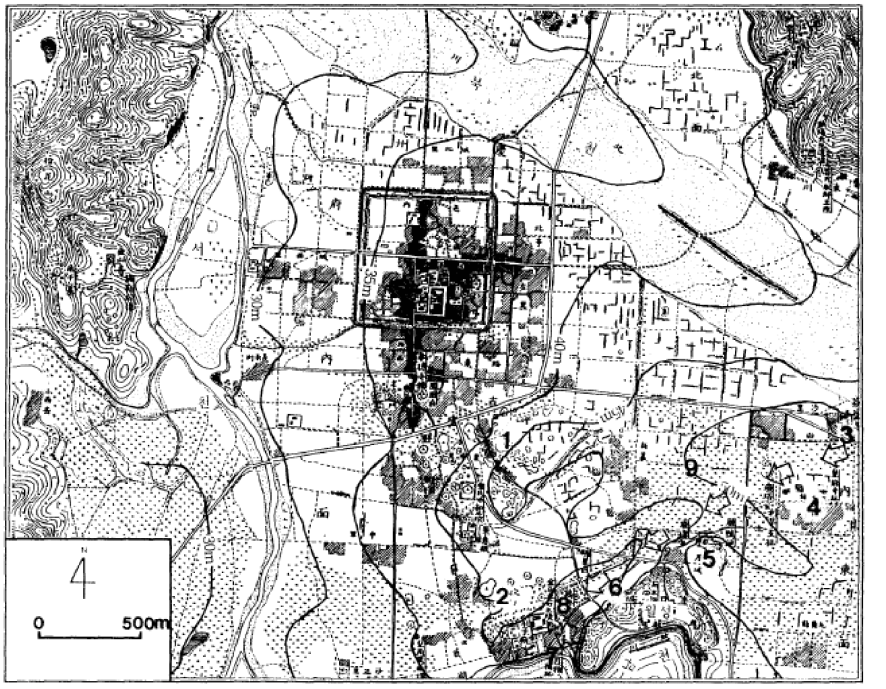
그런데 경주분지와 주변 일대의 숲은 신라인이 생활영역을 확대하면서 조성한 인공림이란 견해가 있다. 〈그림 1〉에서 보듯 경주 지역의 신라 숲은 주로 하천변에 입지하는데, 이는 하천이 경주분지로 범람하는 위험을 막고 유량을 조절하려 인공적으로 조림하거나 보호한 결과라는 것이다.[19] 숲의 인위적 조성을 강조한 견해에 따르면 경주분지의 하천변에 숲이 심어진 시기는 경주분지에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5세기 말~6세기 초라고 한다. 극단적으로는 숲이 조성되기 전 경주분지의 자연경관을 하천이 주기적으로 범람해 저습지와 황무지로 구성됐다고 묘사했다. 토착신앙의 성소로 이해되는 천경림과 신유림, 『삼국사기』 제사조의 문열림·惠樹·樸樹 등도 숲이 조성된 후 새로이 추가된 제사장으로 이해했다.[20]

이 견해는 신라왕경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경주분지가 하천의 범람에 노출된 공간이란 점을 전제한다. 경주 북천은 장마철이 되면 명활산의 북쪽 협곡을 빠져나오는 물이 불어나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 경주분지를 흐르는 소

19) 이기봉, 앞의 논문, 35-41면; 이근직, 앞의 논문, 196-198면.
20) 이근직, 위의 논문, 196-199면.

하천을 형성하며,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경주 분지는 하천의 범람과 흐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1] 월성의 동북쪽 일대가 원래 저습지였다는 토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2〉처럼 북천 동북쪽에서 쏟아지는 물살이 불어나면 분황사→ 황룡사→ 안압지→ 월성해자 북쪽→ 월정교지를 지나 남천과 합류한다고 구체화하기도 했다.[22]

*숫자표기: 4(황룡사) 5(안압지) 6(월성해자), 화살표: 하천이 범람했을 때 예상되는 유로



〈그림 2〉 북천 범람시 유로(이기봉,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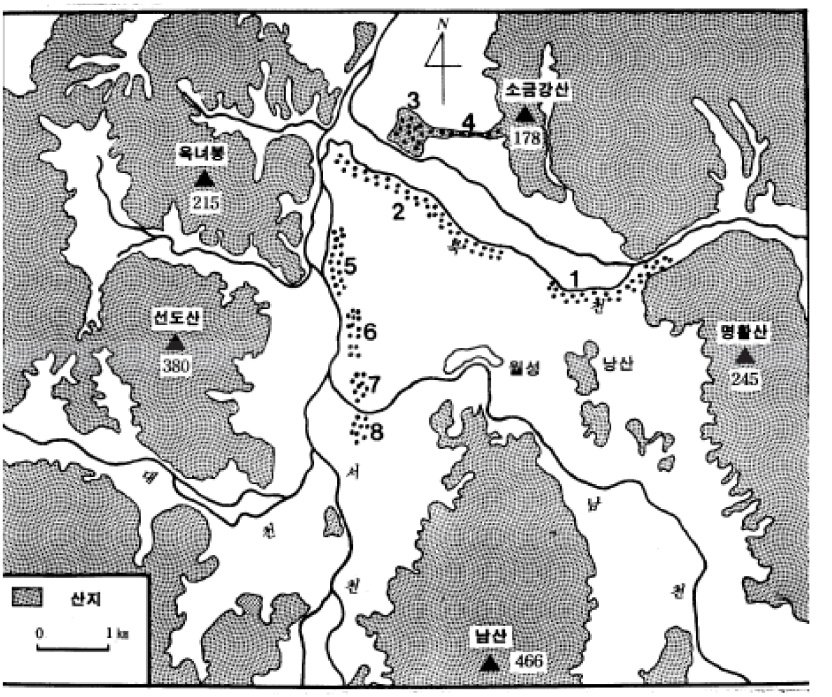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경주분지 하천변의 숲이 하천의 범람을 막으려 조성되었다는 설명은 개연성을 갖는다. 『동경잡기』 및 『조선의 임수』에 기록된 경주의 숲을

21) 이근직, 위의 논문, 194면.

22) 오영훈, 앞의 논문, 22면; 박방룡, 2001「황룡사와 신라왕경의 조성」『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26·41면; 이기봉, 앞의 논문, 50-51면; 박홍국 외, 2003「사로 6촌의 위치에 대한 시론」『신라문화』 21, 9면.

지도에 배치하면 〈그림 3〉처럼 된다. 오리수는 분황사로 향하는 북천의 물길을 서북 방향으로 돌리는 역할, 고성수는 북천 남안의 경주읍성으로의 범람을 막는 역할, 임정수와 고양수는 북천 북안의 황성동 지역으로의 범람을 막는 역할, 나머지 서천과 남천가의 숲도 혹시 모를 범람에 대비한 방수림으로 이해 가능하다.[23] 『동경잡기』에서도 동북쪽에서 발원한 북천이 邑居로 곧장 흘러 고려 현종 때 제방과 林藪를 조성해 수해를 막았다고 한다.[24] 북천의 범람은 신라 때도 문제였을 테니 신라 때 이미 북천을 따라 숲을 조성했으리라 추정하기도 했다.[25]

* 1. 오리수 2. 고성수 3. 고양수 4. 임정수 5. 어대수 6. 천경림 7. 남정수의 북수 8. 남정수의 남수(오릉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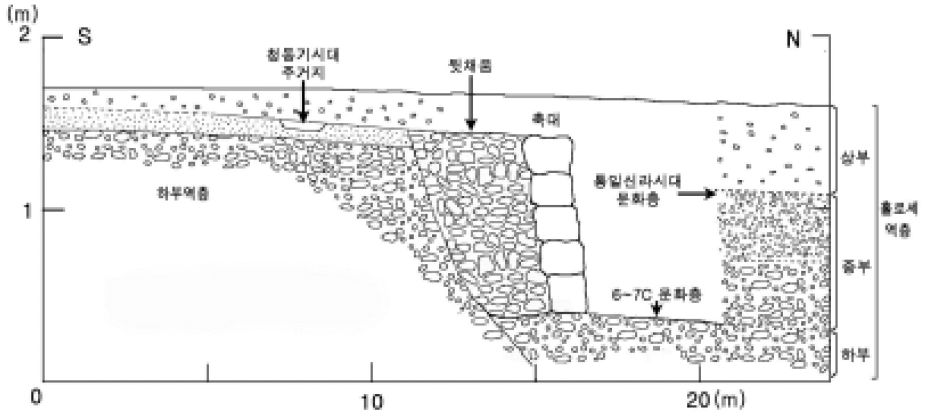
〈그림 3〉 경주분지의 방수림 비정안(이기봉, 앞의 논문)

23) 이기봉, 위의 논문, 37-40면.

24) 『동경잡기』 권1, 山川 "東川一云北川 一云閼川 在府東五里 出楸領入堀淵 俗傳川流自東北直衝邑居 故高麗顯宗期 發全羅忠淸慶尙三道軍丁 築石爲堤盛植林藪以防水害云"

25) 강봉원, 2005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신라문화』 25, 11-12면. 다만 강봉원은 문헌기록상 북천 제방의 보호를 위해 조성한 숲이 '신유림'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기록상 신유림은 낭산 남쪽에 위치해 북천과는 무관하다.

〈그림 4〉는 분황사 동쪽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부지의 퇴적상이다. 그림의 좌측은 황룡사지, 우측은 북천 하상 쪽이다. 이곳은 명활산 협곡에서 서남쪽을 향하던 북천의 유로가 서북쪽으로 꺾이는 지점이며, 그만큼 하천의 측방침식이 크다. 그럼에도 축대 남쪽의 황룡사·분황사를 넘어 흘러 형성된 퇴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축대 남쪽에는 하부자갈층이 퇴적되었고 그 표층에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20m 떨어진 곳에서 지석묘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현재 분황사는 지반을 높이는 별도의 공사 없이 지석묘와 같은 해발고도에 세워졌다. 분황사가 조영될 당시 이곳이 북천의 범람 위협에서 안전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26] 그밖에 분황사 서쪽 일대에 들어선 성동동 전랑지, 황오동 3-7번지 유적, 구황동 880-16번지 유적 등은 북천변과 고도 차이가 약 4~5m 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분황사와 성동동 전랑지를 잇는 공간 내 왕경유적이 하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음을 시사한다.[27]



〈그림 4〉 황룡사지 건립부지 퇴적상(황상일, 2007 앞의 논문)

하천이 범람한 결과 형성되었다고 본 저습지도 여름철 발생하는 일시 범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 저습지는 수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만들어진다. 경

26) 위의 논문, 239-241면.

27) 차순철, 2011「신라 왕경과 북천 범람에 따른 상관관계 검토」『신라사학보』23, 179-180면.

주분지의 저습지는 오히려 선상지 지표면 아래에 흐르는 지하수위의 높이와 관련 있다. 경주분지의 기복면, 특히 황룡사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지하수의 지속적 영향을 받아 저습지로 발달하기 쉽다.[28] 실제 경주분지 동북지역 일대의 토층조사 결과를 살피면 신라의 문화층이 들어서기 이전에 습지 토양이 넓고 두텁게 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29] 습지토양이 그처럼 퇴적되려면 장기간 수분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수분이 공급되는 여름철 강수나 하천의 범람은 오히려 습지토양의 형성과 퇴적을 방해한다.

가-①) 아달라이사금 7년(160) 여름 4월에 폭우가 내려 閼川의 물이 넘쳐 민가가 떠내려갔다. 금성 북문이 저절로 무너졌다.[30]

가-②) 소지마립간 18년(496) 여름 5월에 큰 비가 내려 알천의 물이 넘쳐 2백여 가가 떠내려가고 물에 잠겼다.[31]

가-③) 원성왕 1년(785) 주원은 집이 서울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때마침 큰 비가 내려 알천의 물이 넘쳐 주원이 건너오지 못했다.[32]

나-①) 유례이사금 7년(290) 여름 5월에 큰 물난리가 나서 월성이 무너졌다.[33]

나-②) 흘해이사금 41년(350) 여름 4월에 큰 비가 열흘 동안 내려 평지에 물이 3~4尺이 되었고, 관청과 민가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갔으며 산 13곳이 무너졌다.[34]

---

28) 황상일, 2007 앞의 논문, 894면.

29) 황룡사지 금당지 E지구의 토층에서 갯벌토의 높이가 50cm라는 점과 나머지 금당지와 목탑지의 시굴구에서 흑색니토가 나온 점(문화재관리국, 1984 앞의 책, 50면, 56-58면), 황룡사연구센터 건립예정부지의 여러 조사갱(N60W173, N60W183, N60W193, N80W173, N80W183 N80W193, N90W173, N90W183, N90W193, N90W203)에서 흑색니토·흑갈색니토층이 확인되고 최대 2.3m에 달하는 뻘층이 발견되었다는 점(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책, 209-210면), 월지 동편의 가 지구 1호 건물지의 생토층이 50~100cm 정도의 뻘층으로 된 점(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앞의 책, 47면) 등이 주목된다.

30)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아달라이사금 7년 "夏四月 暴雨 閼川水溢 漂流人家 金城北門自毁"

3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8년 "夏五月 大雨 閼川水漲 漂沒二百餘家"

32)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1년 "周元宅於京北二十里 會大雨 閼川水漲 周元不得渡"

33)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유례이사금 7년 "夏五月 大水 月城頹毁"

34)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흘해이사금 41년 "夏四月 大雨浹旬 平地水三四尺 漂沒官·私

나-③) 효소왕 7년(698) 가을 7월에 京都에 홍수가 났다.[35]
나-④) 성덕왕 2년(703) 가을 7월에 도읍에 홍수가 나서 빠져 죽은 이가 많다.[36]

물론 위 사료에서 보듯 『삼국사기』는 북천의 범람을 기록했다. 신라본기에서 水災는 약 30건 정도 확인되고, 그 중 '알천(=북천)'을 명시한 것은 3건이다. 큰 비가 내려 북천의 유량이 불어나면 민가가 표몰되거나(가-①, ②), 하천을 건널 방법이 없었던 듯하다(가-③). 그밖에 월성이나 관청(나-①, ②), 경도(나-③, ④)에서 일어난 홍수도 북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경주분지 또는 그 주변 일대에서의 범람을 짐작케 한다. 다만 『삼국사기』에서 재해는 국가 변고에 대한 '天'의 감응으로서 기록된 경우가 있다고 이해되고, 수재 기록에는 "大水"처럼 간략히 처리해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것도 많다. 삼국시대의 재해 기록이 오늘날처럼 과학적 기준 및 관찰 결과로 수록된 것도 아니므로, 사료 집필자 혹은 재해 관찰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하천의 범람이 있긴 했겠지만, 『삼국사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경주 지역 수해의 빈도나 구체적 내용을 가늠하기는 곤란하다.[37]

즉, 하천의 범람으로 신라정부가 숲을 하천변에 조성했다는 견해는 논거가 부족하다. 『삼국사기』의 빈약한 사료 근거에 기댄 면도 있다. 예컨대 황룡사 장륙존상을 조성한 숲인 문잉림이 북천변의 황룡사와 멀지 않은 데 있다고 추정했다.[38] 그러나 그렇게 이해할 문헌 근거는 없다. 하천의 범람과 그에 따른 조림을

屋 舍山崩十三所"

35)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7년 "秋七月 京都大水"

36)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2년 "京都大水 溺死者衆"

37) 신라 상고기에 하천의 범람 기사가 여럿 보이다가 중고기에 그런 사례가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6세기 이후 신라정부가 하천변에 제방을 쌓아 범람의 위험을 덜었다고 이해하기도 했다(전덕재, 2005 「신라 왕경의 공간구성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역사와 현실』 57, 185면). 법흥왕 18년(531) 전국의 제방을 수리하란 기사가 있어 경주분지의 치수가 안정되고 제방의 조성도 활발해졌을 개연성은 수긍된다. 다만 치수의 성과가 신라 중고기 수해 기사의 감소 추세와 직접 연결되는지는 재해 기록의 속성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

38) 이근직, 앞의 논문, 196면. 그밖에 황룡사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낭산 서북쪽 일대를 문잉림으로 비정하거나(한정호, 2010 「황룡사 중금당지 불상대석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 24, 43-44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큰 불상을 주조 할 때 주변의 야트막한 구릉에 鎔范을

의식한 추론으로 읽힌다. 천림촌과 林泉寺·東泉寺·臨泉寺 등의 이름을 근거로 한 '천림'은[39] 숲의 실재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신라 당시에 천림이란 숲이 실재했다 하더라도 성덕왕 14년(715) 크게 가물어 임천사 못가에서 기우제를 올렸다는 기록과[40] 『삼국유사』에서 용이 왕래하는 공간으로 동천사의 샘인 靑池를 언급한 점을[41] 고려하면, 천림의 '泉'을 무리하게 '川'과 관련짓기 보다는 샘이나 습지에서 기원한 이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입도림도 모량천의 범람을 제어한 숲으로 보거나,[42] '도림'을 명사로 보고 왕경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주분지의 가장자리에 조성된 숲을 의미한다고 보았다.[43] 그러나 숲이 하천변에 있었음을 의식한 결론이라 생각된다.

또 기존에는 조선시대 이후의 숲 경관을 신라로 소급하곤 했다. 『동경잡기』 및 『조선의 임수』에 보이는 경주분지의 숲이 대개 하천변에 위치했던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논호수라 불린 숲이 개간되어 고양수와 임정수로 분리된 경우도 있고,[44] 고려 현종 때처럼 북천변에 새로이 숲을 조성한 경우도 있다. 후대 문헌에 기록된 경주 하천변의 숲 경관을 삼국시대로 소급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면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이 실행되기 전 세 하천에 둘러싸인 경주분지의 자연경관은 어땠을까. 이를 유추할 단서로 '前佛 시대의 일곱 가람 터'가 주목된다.

다) 서울에 일곱 곳의 절터가 있다. 첫째는 金橋 동쪽의 천경림이다[지금의 흥륜사다. 금교는 西川의 다리를 말하는데, 세간에서는 松橋로 잘못 부르고 있다.

묻는 방식으로 제작한다는 점에 착안해 낭산 북쪽을 지목하기도 했다(이현태, 2016 앞의 논문, 90면). 한편, 장육상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과 청동생산유적 등을 고려해 황남동 376번지 유적을 특정하기도 했다. 이곳은 마립간기 최고위 계층의 능묘가 있는 신성 공간으로 공방이 들어서기 전 울창한 숲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주목된다(김수진, 2014「삼국유사 황룡사장육조의 조상 과정 검토」『한국학논총』 43, 55-56면).

39) 이근직, 앞의 논문, 197면; 차순철, 앞의 논문, 182-183면.

40)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14년 "六月 大旱 王召河西州龍鳴嶽居士理曉 祈雨於林泉寺池上 則雨浹旬"

41) 『삼국유사』 권2, 기이2 원성대왕 "靑池卽東泉寺之泉也 寺記云 泉乃東海龍往來聽法之地"

42) 이근직, 앞의 논문, 196면.

43) 이현태, 2016 앞의 논문, 89-92면.

44) 『동경잡기』 권2, 藪 "今則俗稱高陽藪 古與林井藪相連 今爲奸民割耕之田 分而爲二"

> 절은 아도가 처음 터를 잡았으나 중간에 폐지되었다. 법흥왕 丁未(527)에 이르러 처음 창건되었고, 乙卯(535)에 크게 공사를 벌여 진흥왕 때 마쳤다]. 둘째는 三川歧 [지금의 永興寺다. 흥륜사와 같은 시기에 창건되었다]요, 셋째는 龍宮 남쪽 [지금의 황룡사다. 진흥왕 癸酉(553)에 처음 개창되었다]요, 넷째는 용궁 북쪽 [지금의 분황사다. 선덕왕 甲午(634)에 처음 개창되었다]이요, 다섯째는 沙川尾 [지금의 靈妙寺다. 선덕왕 乙未(635)에 처음 개창되었다]요, 여섯째는 神遊林 [지금의 天王寺다. 문무왕 己卯(679)에 개창되었다]이요, 일곱째는 婿請田 [지금의 曇嚴寺다]로서 모두 전불 시대의 절터이며, 불법의 물결이 길이 흐를 곳이다.[45]

위 사료는 경주분지가 왕경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경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위 기록은 천경림을 비롯한 일곱 장소를 전불 시대의 절터라고 설명했다. 대체로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 신성하게 여겼던 토착신앙의 공간에 불교적 색채를 덧칠한 결과로 이해한다.[46] 즉 천경림, 삼천기, 용궁남, 용궁북, 사천미, 신유림, 서청전은 신라 토착신앙의 공간이고, 나중에 이곳에 흥륜사, 영흥사, 황룡사, 분황사, 영묘사, 천왕사, 담엄사가 들어선 셈이다. 일곱 사찰의 위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뤄졌는데,[47] 담엄사만 남천 남쪽에 위치할 뿐 나머지는 모두 경주분지에 입지했다. 따라서 여섯 사찰이 세워진 경주분지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 유추할 수 있다.

우선 흥륜사와 천왕사가 들어선 천경림과 신유림은 숲이었음이 분명하다. 흥륜사는 '大王興輪寺'의 일부로 보이는 "王興"을 새긴 글자가 출토된 현 경주공고 사지로 비정된다.[48] 서천의 다리 동쪽에 위치했다는 기록에도 부합한다. 천경림

---

45) 『삼국유사』 권3, 법흥3 아도기라 "其京都內有七處伽藍之墟 一曰金橋東天鏡林 [今興輪寺 金橋謂西川之橋, 俗訛呼云松橋也. 寺自我道始基而中廢. 至法興王丁未草創, 乙卯大開眞興王畢成] 二曰三川歧, [今永興寺. 与興輪開同代]. 三曰龍宮南, [今皇龍寺 眞興王癸酉始開] 四曰龍宮北 [今芬皇寺. 善德甲午始開], 五曰沙川尾 [今靈妙寺. 善德王乙未始開], 六曰神遊林, [今天王寺. 文武王己卯開]. 七曰婿請田 [今曇嚴寺], 皆前佛時伽藍之墟, 法水長流之地"

46) 서영대, 1979 「葛蟠地小考: 소도의 불교적 변용」 『종교학연구』 2, 38면; 김택규, 1984 「신라상대의 토착신앙과 종교습속」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5, 213-214면; 이기백, 1986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29면.

47) 전불칠처가람의 절터 위치는 여호규, 2002 「신라 도성의 공간구성과 왕경제의 성립」 『서울학연구』 18, 49-53면 참조.

48) 국립경주박물관, 2011 『경주공업고등학교 내 유구수합조사보고서』, 190면.

은 이 일대에 형성된 숲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천왕사가 들어선 신유림은 낭산 남쪽에 있었다고 전한다.[49]

라-①) 가을 8월에 낭산에서 구름이 일어났는데 바라보니 누각과 같았고 향기가 가득 퍼져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왕이 말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노는 것이니 마땅히 이곳은 복 받은 땅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나무 베는 것을 금하였다.[50]

라-②) 진흥대왕 즉위 5년 甲子에 대흥륜사를 지었다. [국사와 향전에 의하면, 실은 법흥왕 14년 丁未에 터를 잡고, 21년 乙卯에 천경림을 크게 벌채하여 처음으로 공사를 일으키고, 서까래와 대들보를 모두 그 숲에서 취해 쓰기에 넉넉했고, 계단의 초석이나 석감도 모두 있었다.][51]

사료 라-①에 따르면 실성왕 12년(413) 낭산을 신선이 내려온 복지로 여겨 입산과 벌목을 금지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신이 노는 숲'이란 의미를 가진 신유림을[52] 대상으로 내린 조치로 추정된다. 당시 신유림을 향한 인간의 개입이 있었던 사실이 감지되며, 어떤 이유에서 실성왕이 숲의 훼손을 막았음을 알 수 있다. 라-②는 흥륜사를 짓기 위해 천경림을 베어냈음을 전한다. 숲을 '大伐'했다고 특기한 것, 서까래나 대들보로 쓸 목재가 넉넉했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신라왕경의 개발이 본격화되는 6세기 전반까지 천경림은 울창한 숲 지대였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황룡사와 분황사는 각각 용궁의 남, 북으로 지칭되었다. 황룡사와 분황사 사이에 용궁이라 불린 공간이 있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용이 출현하거나 용궁으로의 통로로 우물을 언급한 사례가 많고,[53] 여름철 가물면 용을

49) 『삼국유사』 권1, 기이1 문무왕법민 "朗奏曰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

50)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실성이사금 "十二年 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郁然 久而不歇 王謂 是必仙靈降遊 應是福地 從此後 禁人斬伐樹木"

51) 『삼국유사』 권3, 법흥 원종흥법염촉멸신 "真興大王即位五年甲子 造大興輪寺 按國史與鄉傳 實法興王十四年丁未始開 二十二年乙卯大伐天鏡林始興工 梁棟之材皆於其林中取足 而階礎石龕皆有之"

52) 『삼국유사』 권1, 기이1 문무왕법민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

5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5년 "春正月 龍見於閼英井": 『삼국사기』 권1,

그려 기우제를 지냈다는 점에서[54] 용과 물의 친연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황룡사 서북쪽 논의 土塊, 분황사의 三龍變魚井, 황룡사 서편의 집수시설, 황룡사지 강당지 동북쪽의 대형우물 등을 용궁으로 특정하기도 했다.[55] 그러나 사료 다)의 용궁은 황룡사와 분황사가 들어서기 이전의 공간을 가리킨다. 황룡사가 습지토양을 매립하고 지어졌다는 토층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용궁은 특정 건물지라기 보다 원래 이곳에 형성되었던 저습지를 가리킬 개연성이 높다. 황룡사지 아래 퇴적된 습지토양의 두께는 약 50cm이며, 이는 황룡사 조성을 위해 매립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저습한 상태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면 용궁은 저습지이면서 주변에 초목 식생이 피복한 '수'의 경관을 이뤘다고 이해된다.

영묘사가 조성된 공간은 사천미로 지칭되었다. 사천은 남천의 다른 이름인 年川 또는 蚊川이라고도 한다.[56] 그러니 사천미는 사천의 '尾', 즉 남천이 끝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그곳에 영묘사가 세워진 셈이다. 영묘사는 대개 '靈妙之寺', '大令妙寺造瓦' 등의 명문와가 수습된 전흥륜사지로 본다. 현재 남천은 전흥륜사지의 서쪽에서 서천과 합류하므로 남천이 끝나는 지점이란 의미와도 통한다.[57]

영묘사는 본래 커다란 저습지였고 그곳을 매립해 사찰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58] 조선시대 기록이지만 그렇게 구전된 나름의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이 기록이 아니라도 선덕여왕 설화에서 영묘사에 玉門池란 못이 있었다고 전하고,[59] 『삼국사기』 제사지 기록에서 四川上祭 제장의 하나인 靑淵을 영묘사 남쪽으로 이해하기도 했다.[60] 영묘사는 하천, 저습지, 못 등 물과 친연이 있는 공간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6년 "秋九月 二龍見於金城井中";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33년 "夏四月 龍見金城井";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4년 "夏四月 龍見金城井中";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2년 "三月 龍見鄒羅井";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22년 "夏四月 暴風拔木 龍見金城井";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3년 "龍見楊山井中";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경문왕 15년 "夏五月 龍見王宮井 須臾雲霧四合飛去"; 『삼국유사』 권5, 神呪6 명랑신인 "因海龍之請入龍宮傳秘法施黃金千兩 潛行地下湧出本宅井底" 등.

5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0년 "夏大旱 移市 畫龍祈雨"

55) 그동안 용궁을 어디로 비정했는지는 박방룡, 2001 앞의 논문, 35-37면 참고.

56) 『삼국유사』 권5, 의해5 元曉不羈 "沙川 俗云年川又蚊川"

57) 여호규, 앞의 논문, 50면.

5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佛宇 "諺傳寺址本大澤 豆豆里之象 一夜塡之 遂建此 今廢"

59) 『삼국유사』 권1, 기이1 선덕왕 지기삼사 "二於靈廟玉門池"

으로 여겨진 것이다. 또 영묘사는 남천을 경계로 오릉과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되었는데, 그 사이엔 남정수(=오릉림)이라 불린 숲이 있었다. 『동경잡기』에 따르면 남정수는 남천의 북안과 남안에 형성된 숲인데, 당시엔 영묘사 쪽에 해당하는 남천 북안의 숲이 제거되고 없었다고 한다.[61] 사라진 남천 북안의 숲의 존재를 신라로 소급할 수 있다면, 사천미는 남천의 하변 또는 영묘사가 세워진 습지대를 따라 형성된 숲인 '수'의 경관을 갖췄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영흥사가 들어선 삼천기는 서천변에 위치했다는 점 외에 특별히 자연경관을 유추할 단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담엄사가 들어선 서청전은 밭을 의미하는데, 숲이나 저습지로 여겨지는 다른 공간과 달리 인간의 개입 흔적이 뚜렷하다. 게다가 남천 이남에 위치하므로 경주분지의 원래 자연경관을 유추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정리하면 사료 다)에서 그려지는 경주분지의 원래 자연환경은 대체로 숲과 저습지다. 저습지도 식생이 서서히 피복하고 초목이 자라는 '수'의 숲 경관을 갖췄다. 상대적으로 개간 능력이 낮았던 고대엔 숲이 울창했으리라 추정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경주의 숲 지명이 유독 많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신라인의 생활공간을 둘러싸고 숲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즉, 왕경으로 개발되기 전 경주분지는 임수가 발달한 자연경관을 이뤘다.

3. 왕경개발과 숲의 해체

1) 외부세계로서 경주분지

앞서 왕경개발 이전의 경주분지를 숲이 발달한 공간으로 파악했다. 이와 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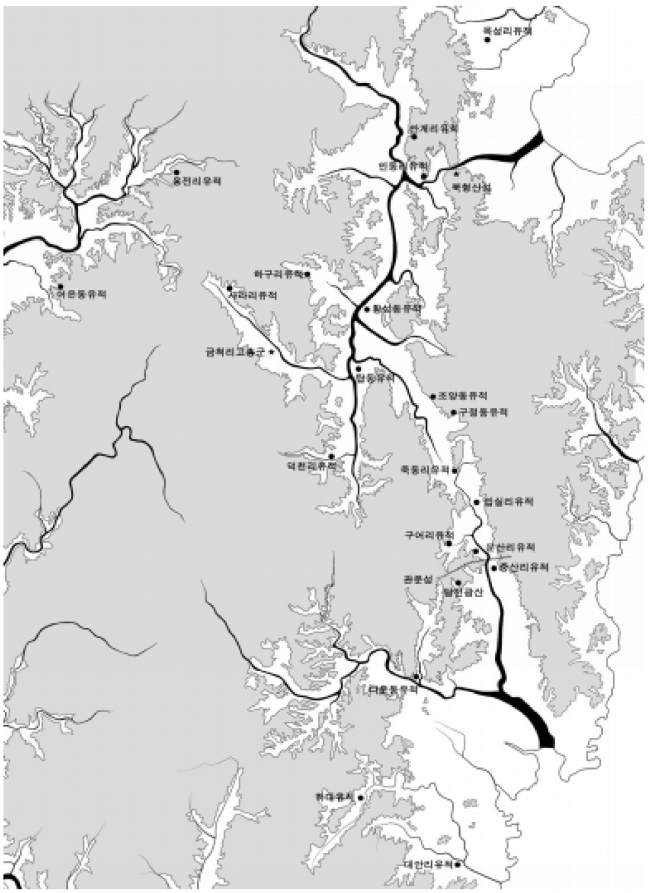
60) 신동하, 2000 『신라 불국토사상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28면. 그와 달리 서천변의 금장대 아래 女妓淸沼 또는 藝妓淸沼, 애기청소로 불리는 곳을 청연으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황수영, 1998 『한국의 불상 (상)』, 혜안).

61) 신동하, 위의 논문, 27-28면. 그와 달리 財買夫人을 장사지낸 곳이 靑淵上谷이란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경주 서천의 靑沼라 불리는 곳을 청연으로 지목한 견해도 있다(황수영, 1974 『한국의 불교미술』, 동화출판공사, 157면).

해 고고학 발굴조사 결과 신라초기의 유적이 경주분지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영남 지방에서 초기 묘제인 목관묘가 군집 조성되는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2세기 말~1세기 초다.[62] 이 무렵 경주에서도 목관묘와 목곽묘가 조영되는데, 〈그림 5〉에서 보듯 신라왕경의 중심지인 경주분지에서 벗어난 경주시 외곽의 산곡지대에 위치한다.

* 흰색(평지), 어두운 부분(산지), 검은색(하천)



〈그림 5〉 원삼국시대 경주 일대 유적 분포(이희준, 앞의 논문)

62) 이희준, 2011「경주 황성동유적으로 본 서기전 1세기~서기 3세기 사로국」『신라문화』38, 153면.

경주분지에 인접한 곳으로는 황성동 유적과 최근 확인된 탑동 21-3·4번지의 목관묘 1기가 있다. 북천 북쪽에 위치한 황성동 유적은 제철유적, 묘역, 주거지 등 여러 내용이 조사되었다. 황성동 유적은 이르게는 기원전 1세기 후반, 늦게는 2세기 경 조영되기 시작했고, 3세기 후반~4세기 초가 되면 공간이 포화상태에 다다를 정도로 팽창했다.[63] 남천 남안의 오릉과 천관사지 사이에 입지한 탑동 21-3·4번지 목관묘는 1세기 후반~2세기 전반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장품의 질과 양 면에서 1세기 목관묘 단계의 수장급 무덤인 사라리 130호에 버금간다.[64] 탑동에서 목관묘는 단 한 기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치세력권 형성이나 취락의 장기 지속을 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65] 그럼에도 탑동 일대에 미발굴된 목관묘군이 분포하리라 보고 목관묘 부장 유물의 우열을 따져 황성동 지역이 종속적 지위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거나,[66] 남산 서북사면의 알천 양산촌과 연결하는[67] 등 적극적으로 해석되었다.

경주분지에서는 그보다 다소 늦은 3세기 전후 유적이 조영되기 시작했다. 3~4세기대 유구는 월성벽의 축토층, 월성 서벽 문지 밖 동남쪽 귀퉁이 성벽의 기저부, 월성 북편 해자 사이의 굴립주 건물 하층에서 확인되었다.[68] 그러나 유적·유물의 분포 및 수량은 제한적이며, 3세기 후반에야 월성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까지 확대된다.[69] 월성도 『삼국사기』에서 파사이사금 22년(101)에 이미 쌓았다 전하지만,[70] 월성 서쪽 성벽을 절개한 결과 성벽 기저부에 황남대총

63) 황보은숙, 2009 「경주분지 내 원삼국시대 유적의 이해: 황성동유적과 월성 주변유적을 중심으로」『경주사학』 30, 11면.

64) 박종섭 외 4인, 2011 「경주 탑동 21-3·4번지 유적」『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Ⅳ 경북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17-220면.

65) 기원전 1세기 이후 현저해지는 집단묘역의 조성을 단독무덤과 대조해 취락의 장기지속, 계층분화의 진전, 정치체 형성의 지표로 이해한다(이현혜, 2008 「고고학자료로 본 사로국 육촌」『한국고대사연구』 52, 205-211면).

66) 이희준, 앞의 논문, 171면.

67) 정연식, 2015 「역사음운학과 고고학으로 탐색한 閼川 楊山村」『한국고대사연구』 80, 30-32면.

68) 김낙중, 1999 「신라 월성의 성격과 변천」『한국상고사학보』 27, 228-229면.

69) 황보은숙, 앞의 논문, 9-10면.

7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二十二年 春二月 築城 名月城"

단계의 토기가 나와 현 단계의 월성은 5세기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늦추어본다.[71] 묘역도 4세기부터 대릉원 동편의 쪽샘지구와 월성로 부근에 조성되고, 5~6세기에 걸쳐 거대한 적석목곽묘가 경주시내의 중심부인 노서동, 노동동, 황오동, 황남동 일대 그리고 남쪽의 교동, 인왕동 일대에 분포하게 된다.[72]

이러한 유적 조영의 추세를 감안하여 경주분지는 하천의 범람으로 취락이 발달하기 어려운 공간이라 설명해왔다.[73] 하천의 범람은 앞서 지질·지형학 견지에서 충분히 반론되었으니 차치하더라도, 기원을 전후해 유적이 조영되는 경주시 외곽지역에 비해 경주분지가 인간의 개입이 뒤늦은 공간이었다는 점은 이해가능하다.[74]

인적이 드물면 숲은 발달한다. 지하수위가 높아져 형성된 저습지는 인간의 거주를 방해했고,[75] 오랫동안 그곳을 수원으로 삼은 초목식생이 저습지 주변에 우거졌을 것이다. 물론 3세기 이전에도 경주분지로 건너와 생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도구로 숲의 복원 속도를 넘는 개간은 어려웠다. 경주분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왕경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경주분지의 일부 공간만을 활용할 수 있었다. 나머지 대부분 공간은 여전히 숲이었다.

신라인은 이런 숲 공간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건국신화에 가장 이른 시기의 숲 인식이 드러나 주목된다.

---

71) 박성현, 2017「경주 월성 발굴의 의미와 성과」『내일을 여는 역사』 68, 158면.

72) 김재홍, 2013「신라 왕경의 개발 과정과 발전 단계」『한국사학보』 52, 206-207면.

73) 김재홍 1995 앞의 논문, 61-62면; 이기봉, 앞의 논문, 31-41면; 이근직, 앞의 논문, 194-195면; 황보은숙, 앞의 논문, 11-16면 등.

74) 탑동 목관묘가 발견되면서 경주분지는 황성동 유적과 탑동 유적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보거나(이희준, 앞의 논문, 164-166면), 사로국의 중심이 탑동 일대에서 남천을 건너 월성과 대릉원 일대의 개방 지형으로 옮겨졌다고 추정하기도 했다(김용성, 2016「영남지방의 목관묘와 사로국」『한국고대사연구』 82, 38면). 다만 탑동 및 경주분지에서 추가로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을 전제했다. 탑동 목관묘의 발견으로 경주분지 내 유적 조영의 시기가 앞당겨질 개연성은 높아졌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적·유물로 경주지역 내 정치세력 분포의 구체적 양상을 속단해서는 곤란하다.

75) 금성 동쪽의 민가가 함몰하여 못이 되고 연꽃이 자랐다는 기록(『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十二年 五月 金城東民屋陷爲池 芙蕖生")이 주목된다. 기록의 신빙성이나 금성 위치에 견해차는 있지만, 인간의 주거지가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아 습지로 변했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①) 시조의 성은 박씨이고 이름은 혁거세다. (중략) 고허촌장 蘇伐公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 곁 수풀 사이에 무릎을 꿇고 우는 말이 있었다. 가보니 말은 보이지 않고 큰 알이 있어 갈라보니 갓난아이가 나왔다.[76]

마-②) 당시 포구의 해변에 한 할멈이 있었다. 이름은 阿珍義先으로, 혁거세왕의 고기잡이 할멈이었다.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 바다 가운데엔 원래 바위가 없는데 어찌 까치가 모여서 우는가?" 하고 배를 끌어당겨 살펴보았다. 까치가 배 위로 모여들고 배 안에 상자 하나가 있었다. 길이는 스무 자, 넓이는 열석 자였다. 배를 끌어다가 나무 숲 밑에 매어두고 이것이 흉한지 길한지 몰라 하늘을 향해 고하였다. 잠시 후 궤를 열어보니 단정히 생긴 사내아이가 있고, 또 일곱 가지 보물과 노비가 그 속에 가득하였다.[77]

마-③) 왕이 밤에 금성 서쪽 시림의 나무 사이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밝자 호공을 보내 살펴보게 하니 금색 작은 궤짝이 나무 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돌아와 고하니, 왕은 사람을 시켜 궤짝을 가져와 열게 했다. 작은 남자아이가 안에 있었는데, 자태가 뛰어나게 훌륭했다. (중략) 시림의 이름을 계림으로 고치고 이것으로 국호를 삼았다.[78]

혁거세는 양산 기슭에 있는 나정 곁의 숲에서 태어났다(마-①). 탈해는 고기잡이 할멈이 견인한 배의 궤짝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배를 나무 숲 아래에 두고 하늘을 향해 길흉을 물었다. 여기서 숲은 낯선 대상의 길흉을 점쳐주는 하늘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정되었다(마-②). 알지는 금성 서쪽 시림의 궤짝에서 발견됐다. 시림은 나중에 계림으로 개칭하고 신라의 국호가 되었다(마-③). 三姓의 시조신화에서 숲은 모두 신성 공간으로 배치되었다. 그중 알지가 태어난 시

7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始祖姓朴氏 諱赫居世 (중략) 高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77) 『삼국유사』 권1, 기이1 제4탈해왕 "時浦邊有一嫗 名阿珍義先 乃赫居王之海尺之母 望之謂曰 此海中元無石嵓 何因鵲集而鳴 拏舡尋之 鵲集一舡上舡中有一櫝子 長二十尺 廣十三尺 曳其船置於一樹林下 而未知凶乎吉乎 向天而誓爾 俄而乃開見 有端正男子 幷七寶奴婢滿載其中"

78)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王夜聞金城西始林樹間 有鷄鳴聲 遲明遣瓠公視之 有金色小櫝掛樹 枝白雞鳴於其下 瓠公還告 王使人取櫝開之 有小男兒在其中 姿容奇偉 改始林名雞林 因以爲國號"

림은 경주분지 내에 위치한다. 그 숲을 시조가 탄생한 신성한 공간과 연결한 것이다.[79]

앞서 살핀 전불시대의 일곱 가람터도 신성한 공간으로 이해된다. 천경림은 하늘과 종교 의기인 거울로 이름 붙여진데다, 이차돈의 순교 사건에서 불교사원을 천경림에 낙성하려는 법흥왕의 의지가 귀족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점에서 토착신앙의 성소로 이해한다.[80] 이곳을 대대적으로 벌채했으며, 서까래나 대들보로 쓸 목재가 넉넉하다고 한 것(라-②)도 그동안 천경림이 인간에게 개간되지 않은 신성 공간이란 이해를 더한다. 신유림도 '신이 노니는 숲'이란 의미를 가졌고, 이곳에 입산과 벌목을 금지한 점에서 천경림 같은 신성 공간으로 생각된다. 지배권력이 민의 접근을 제한한 공간이 신유림이라면, 천경림은 왕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었던 신성 공간이었다. 전불시대의 일곱 가람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황룡사 장육존상과 두 보살상을 만든 문잉림도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 금속제품을 제작한 신성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81]

용궁과 사천미도 저습지나 하천변에 '수'와 같은 숲이 발달한 경관을 이뤘다. 경주분지의 저습지는 선상지 지형의 기복에 따라 지하수위가 높아지면서 형성되었는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된 '땅이 균열되면서 샘이 솟는' 현상이[82] 바로 이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러 이 현상을 신라본기에 기록한 만큼 흔한 일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지하수가 용출하는 모습에서 지하 속 용의 출현을 연상하기도 했을 것이다. 뒤에 경주분지를 거주지로 선택한 사람들은 샘이 솟는 곳을 찾아 우물로 만들어 사용했을 텐데, 이것이 나중에 '우물에서 용이 나왔다'는 일련의 기록으로[83]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

79) 서민수, 앞의 논문, 31-32면.

80) 이차돈의 순교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불교 공인에 반대한 군신이 '創寺於天鏡林'을 이유로 내세웠음이 확인된다(최광식, 1985「이차돈 순교설화에 대한 신고찰」『한국전통문화연구』 창간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31면).

81) 조법종, 1987「신라사원노비의 기원문제에 관한 일고찰」『사총』 32, 28-29면.

8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11년 "京都地裂 泉湧";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기림이사금 7년 "秋八月 地震 泉湧";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실성이사금 15년 "夏五月 吐含山崩 泉水湧 高三丈";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3년 "夏四月 牛谷水湧"

이 드물고 저습지를 개발할 능력이 부족했던 단계에는 지하수가 용출해도 방치되었다. 그 결과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곳은 오랫동안 지하수의 영향을 받아 너른 저습지가 형성되고 숲도 발달했을 것이다. 특히 황룡사지 일대는 저습지로서 인상적 경관을 형성했기에 '용궁'으로까지 지칭된 듯하다.

그럼 왜 숲은 신성 공간으로 인식되었을까. 고대 중국의 신화적 세계관을 반영한 『산해경』이 참고된다. 이토 세이지는 『산해경』을 비롯한 고대 중국문헌에 드러난 고대인의 세계관을 '내부세계'와 '외부세계'로 구분했다. 즉, 인간의 생활공간인 마을과 밭은 고대인의 소우주를 이룬 '내부세계'고, 생활공간 바깥의 山林藪澤은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야수와 독사가 횡행하는 위험한 '외부세계'다. 그런데 인간은 임산물 채취, 야생동물 포획, 농경지 개간 등 더 나은 생계를 위해 '외부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외부세계'의 요괴·귀신을 비롯한 여러 존재와 마주치게 되고,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하여 '내부세계'의 안녕을 지키려 했다고 한다.[84] 이런 해석을 따르면 고대인의 세계관에서 숲은 일상세계의 질서에서 벗어난 신비와 미지의 공간이었을 여지가 있다.

경주분지도 산림수택이 발달했다. 인간의 개입이 적은 숲엔 오랫동안 개간되지 않아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랐다. 저습지와 하천변에도 초목이 밀생했다. 숲과 저습지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야생동물도 서식했다. 이런 공간은 신라인에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외부세계'와 같은 공간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경주분지로 건너와 임산물을 채집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숲과 저습지가 발달한 이 공간을 인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내부세계'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시조신화에서 숲 속에 말이 보여 다가갔는데 알이 있었다거나, 닭 울음소리가 들려 숲으로 갔더니 나무에 금궤가 걸려있었다는 식의 서사도 숲을 아직 '외부세계'로 인식한 고대인의 심성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85]

2) 내부세계로 전환

그러면 경주분지의 숲은 언제, 어떻게 '내부세계'로 전환됐을까.

---

83) 각주 55 참조.

84) 伊藤清司, 1969『中國の神獸・惡鬼たち: 山海經の世界』, 東方書店, 2-11면, 225-232면.

85) 서민수, 앞의 논문, 33면.

이에 관해 4세기 전후 월성 북편에 묘역이 조성된다는 고고학 발굴 성과가 참고된다. 특히 대릉원 동편의 쪽샘지구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발굴조사로 4~6세기 고분 531기가 확인되었다.[86] 황오동 쪽샘지구 서편으로는 황남동, 노동동, 노서동 고분군이 이어진다. 마치 이 일대를 묘역으로 기획한 것처럼 고분이 밀집한다. 5세기 이후엔 초대형 적석목곽분도 조성된다.

현재 황남동 115호 쌍분 북쪽엔 황남동 고분군 사이를 지나 서천으로 유입하는 용천천이 있고, 노동동 고분군 북쪽엔 그곳에서 발원해 500m 서류하다 논에서 사라지는 소하천이 있다.[87] 대릉원 일대의 적석목곽분은 대체로 해발고도가 주변보다 1~3m 높은 곳에 입지하지만,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지하수위가 지표면 부근까지 상승해 소하천 주변은 범람원이 된다.[88] 이 일대를 묘역으로 사용하려면 저지대를 따라 형성된 저습지 또는 습한 토양을 육지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오랫동안 자란 초목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는 작업도 병행되었을 것이다. 즉, 4-5세기 이후 경주분지에서 유적의 조영 확대와 묘역 조성은 그만큼 숲 개간도 가속되었음을 반영한 지표로 이해된다.

일정 구역의 숲과 저습지를 육지로 개발하는 작업은 철기를 다수 집적한 신라의 지배층이 주도했을 것이다. 농민층도 건축재와 생활도구 제작, 취사와 난방용 땔감 마련, 농경지 확보를 위해 숲 일부를 벌채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한 낫 등의 간단한 철제농기구로는 숲의 복원 능력을 넘는 개간을 이루기 어렵다. 그에 비해 5세기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U자형삽날, 쇠스랑, 주조괭이 등의 농기구와 단조도끼, 낫 등 개간도구가 다량 출토되어 당시 숲을 개간하고 농토를 마련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 즉, 철기의 제작과 관리를 장악한 신라의 지배층은[89] 대릉원 일대를 고분이 밀집하는 묘역으로 개발하고, 그 주변을 거주지와 농경지로 개발할 능력을 갖춘 것이다. 그로부터 경주분지는 점차 인간의 일상이 이루

86)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 2016『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 Ⅷ』, 18면.

87) 황상일, 2014「경주지역 적석목곽분 형성에 미친 자연환경의 영향」『한국지형학회지』21, 21면.

88) 위의 논문, 24면.

89) 이현혜, 1998「4~5세기 신라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한국고대의 생산과 교역』, 165-166면.

어지는 '내부세계'로 바뀌었다.

4~5세기 경주분지의 숲과 저습지가 점차 인간의 생활공간으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토착신앙의 성소로 여겨진 숲마저 베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실성왕 12년(413) 낭산으로의 입산과 벌목을 금지한 사례(라-①)가 주목된다. 이 기사를 통해 '신이 노니는 복된 땅', 즉 신유림을 향한 인간의 접근을 차단한 실성왕과, 그 무렵 낭산에서 나무를 벌채한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무렵 일부 신라인은 숲의 신성을 의식하기보다 숲이 주는 산물과 혜택에 관심을 쏟았다. 실성왕은 신성 공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입산과 벌목을 차단했지만, 숲이 가진 '외부세계'의 이미지는 이미 균열된 것이다.

바-① 자비마립간 12년(469) 봄 정월에 서울의 坊里 이름을 정했다.[90]
바-② 소지마립간 9년(487) 3월에 처음으로 사방에 郵驛을 설치하고, 해당 관청에 명해 官道를 수리하게 했다.[91]
바-③ 소지마립간 9년(487) 가을 7월에 월성을 수리하였다.[92]

위 사료는 5세기 중후반 방리의 구획, 우역의 설치, 관도 수리, 월성의 수즙 등 여러 조치로 경주분지가 왕경이 들어설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바-②는 경주분지 내 격자형 도로 구획의 실시 여부와 관련해 논의가 집중되었다.[93] 다만 자비마립간대로 소급할 이방제의 흔적은 아직 찾아지지 않았다. 때문에 격자형 도로 구획과 관련된 방제의 시행 시점은 대개 뒤로 늦추어본다. 고고학 발굴성과에 따르면 황룡사 및 인왕동 일대의 도로 유구와 건물지의 초축 시기는 6세기 후반, 서부동 일대는 7세기 후반, 동천동 일대는 7세기 말~8세기, 황성동 일대는 8세기 이후로 편년된다.[94] 이는 신라 중고기 왕경의 도로구획이 세 하천에 둘러싸인 경주분지 안을 대상으로 했고, 경주분지의 중심에서 주변부

90)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2년 "春正月 定京都坊里名"
9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9년 "三月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
92)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9년 "秋七月 葺月城"
93) 그간의 이방제 논의는 다음 논고에서 자세히 정리되었다. 이현태, 2012 「신라 왕경의 里坊區劃 및 범위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신라문화』 40.
94) 신창수, 2002 「신라의 왕경」 『강좌 한국고대사 7』,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85-196면; 황보은숙, 2008 「신라왕경의 도시적 발달」 『신라문화』 32, 336-353면.

로 이방 구획이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위 사료는 주로 왕경개발의 관점에서 다루어졌지만, 숲 개간의 관점에서 보아도 중요한 획기로 음미된다. 앞서 4-5세기 전후 경주분지로 인간의 개입이 확대되고 숲 개간이 가속되었음을 밝혔다. 이때 숲 개간은 묘역이나 거주지, 궁궐과 성곽, 농경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주분지의 공간 일부를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방제의 실시는 장기적으로 격자형 도로망을 경주분지 전체에 구획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그림 6〉 참조).[95] 이를 숲 개간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방제 실시의 선결과제로서 도로 구획에 방해되는 숲과 저습지는 개간하겠다는 것이다. 즉, 위 사료가 전하는 5세기 후반 일련의 조치는 숲이 울창한 경주분지의 자연경관을 변모시키고, 인간이 생활하는 '내부세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신라 왕경의 격자형 도로 복원안

95) 李恩碩, 2003「新羅王京の都市計劃」『東アジアの古代都城』, 吉川弘文館, 90-91면(이현태, 2012 앞의 논문, 130면에서 도판 재인용).

천경림의 벌채와 흥륜사 조영도 경주분지 내 격자형 도로를 구획하려는 의도와 관련 있다. 흥륜사의 앞길, 즉 남문 앞을 지나는 동서방향의 도로를 동쪽으로 연장하면 대릉원 남쪽과 안압지 북쪽을 지나 황룡사 남문 앞을 통과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도성을 건설할 때는 도시의 중심축을 가장 먼저 정했는데, 신라의 경우 흥륜사 앞길과 황룡사 남문 앞을 지나는 도로를 잇는 선이 왕경 개발을 위한 동서의 중심 축선이라 한다.[96] 앞서 경주분지에 격자형 도로망을 구획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숲과 저습지의 개간을 추정한 바 있다. 왕경의 동서 중심축이 설정되면서 축선의 서쪽 끝인 천경림은 개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축선의 동쪽 끝에 세워진 황룡사도 마찬가지였다. 흥륜사가 낙성되고 얼마 후 황룡사 조영이 시작되었다.[97] 그를 위해 황룡사 부지에 형성된 저습지인 용궁을 매립하고 주변부 숲을 개간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으리라 이해된다. 경주분지에 격자형 도로 구획이 완전한 형태로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이방제를 실현하려는 의도에는 경주분지에 도로를 내고 공간을 구획하는 데 방해되는 숲과 저습지를 얼마든 개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조치 속에서 인간의 접근이 제한된 '외부세계'로서 숲은 인간의 일상 공간인 '내부세계'로 인식되었다.[98] 천경림을 베어낸 곳에 외래종교의 사원인 흥륜사를 낙성한 사실은 6세기 전반 신라왕이 개간에 가장 보수적이었을 토착신앙의 성소로 여겨진 숲마저 자신의 의도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준다.[99] 경주분지 곳곳이 궁궐과 관아, 사찰, 도로, 주거지와 묘역, 농경지로 개발되면서, 울창한 숲으로 대변되던 경주분지의 자연경관은 인공공간으로 변모했다. 경주분

96) 여호규, 앞의 논문, 58면; 이현태, 2010「신라 중고기 리방제의 수용과 왕경의 중심축선」『선사와 고대』32, 290-291면. 다만 여호규는 흥륜사와 황룡사를 잇는 축선이 일직선은 아니라 지적했고, 이현태는 기존에 제작된 지적도의 한계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97)『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4년 "春二月 王命所司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皇龍"

98) 진흥왕 22년(561) 세워진 창녕비에 "除林", "土地彊時山林" 같은 문구가 새겨져있어 주목된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당시 경주분지에서 숲과 저습지 개간이 원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숲 공간이 '내부세계'로 전환한 인식의 일면을 담고 있다 생각된다.

99) 서민수, 앞의 논문, 55면.

지에서 왕경개발을 위한 숲 개간과 저습지 매립 현장이 가시화한 만큼, 숲 공간은 빠르게 '내부세계'로 전환되었다.

4. 맺음말

이상 신라왕경의 도시개발을 생태환경사의 관점에서 독해하고자 했다. 왕경개발을 다룬 기존 연구는 고대국가의 성장 지표인 경주분지의 도시화 과정에 관심을 쏟았다. 경주분지를 둘러싼 자연환경은 인간사의 한 배경 또는 농경지로 개간되어야 할 대상으로 다뤄질 뿐이었다. 여기서는 왕경 개발로 사라진 숲과 저습지에 주목하고, 나아가 숲 공간을 인간사회와 상호작용한 역사공간으로 다뤘다. 문헌사료, 고고학 발굴조사, 경주의 지리환경, 숲과 습지 생태에 대한 이해를 종합함으로써, 경주분지의 자연경관이 인공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고학 발굴 성과에 따르면 경주분지는 4세기 이전까지 경주시 외곽에 비해 인적이 드문 공간으로 파악된다. 인간의 개입이 드문 만큼 경주분지 내 숲은 울창하게 자랐다. 경주분지의 지형 기복을 따라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는 저습지가 형성되었다. 저습지는 초목이 덮인 '수' 같은 숲 경관을 이뤘다. 즉, 4세기 이전 경주분지는 임수가 발달한 공간이었다.

이후 경주분지로 이주한 인구가 늘고, 철제농공구의 질과 양이 개선되면서 경주분지의 임수는 개간되었다. 처음에는 철기를 다량 집적한 신라의 지배층이 필요에 따라 일부 숲을 개간하고 저습지를 매립했다. 궁궐, 관아, 사찰, 묘역, 주거지, 농토 등 목적에 맞게 일부 구역을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주분지에 격자형 도로망의 구획을 실현하게 되면서 숲과 저습지는 전면 개간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소위 이방제의 실시는 경주분지 내 숲과 저습지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자연생태관의 반영이었다. 본래 숲은 인간의 접근이 제한된 '외부세계' 같은 공간이었지만, 숲과 저습지가 개발의 대상이 되고 또 개발 현장이 경주

분지 곳곳에서 가시화하면서 점차 인간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내부세계'로 인식되었다.

주제어 : 신라, 삼국시대, 왕경, 숲, 저습지, 생태환경사

투고일(2018. 1. 30), 심사시작일(2018. 2. 13), 심사완료일(2018. 3. 2)

〈Abstract〉

Forest clearing and Landscaping change of royal Capital in Middle Ancient period of Silla

Seo, Minsu *

This paper i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forestry articles of the Gyeongju Basin from the view of ecological environment history. In previous studies, forest space was just a background of human history. From the view of socio-economic history, it has been described as a subject that human beings must develop or overcome to promote agricultural production. However, recent accumulation of research has clarified that the state power seeks to take control of the forest space and its resources. In this paper, I tried to read the forest, which had not been studied in the existing viewpoint, into the historical space that interacted with human socie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the Gyeongju Basin is seen as a rare human space before the 4th century. As human intervention is rare, the forests in the Gyeongju Basin grew lushly. In the lower part of the Gyeongju Basin, wetland was formed as the groundwater level increased. Wetlands flourished in forests like 'Su(藪)' covered with vegetation.

As the population migrated to the Gyeongju Basin increased and the quality and quantity of steel tools improved, the forests and wetlands of the Gyeongju Basin were cleared. In the early days, forests were cut down and wetlands were buri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dominant layer. However, as the grid-like road network gradually divided into the Gyeongju Basin, forests and wetlands became the subjects of full-scale clearing. The so-called 'Ri-bang Local Administration(里坊制)' reflected the natural view that the Gyeongju Basin's forests and wetlands can be removed at any rate. The forest was originally considered a sacred "outside world" with limited human access. However, forests and wetlands have become fully developed, and development sites have become

* Researcher, Korean Institute for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

visible throughout the Gyeongju Basin. As a result, the forest gradually transformed into an ‘inner world’ in which human daily life takes place.

Key Words : Silla, three kingdoms period, the capital of Silla kingdom, forest, wetlands,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